

자원적정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Scale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 趙 英 姬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oung Hee Cho

목 차

- | | |
|----------------|---------------|
| I. 서 론 | 3. 자료분석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V. 결 론 |
| 1. 척도구성 | 참고문헌 |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scale to measure the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PAR). A 38-item instrument was analysed with responses from 300 wives dwelling in Seoul.

PAR was categorized housing, health, time, money, interpersonal, knowledge/skills, community resources.

Data were analysed by the method of Pearson's Correlation,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Items were loaded eight resource categories such as time, housing, money, health, knowledge, social support, community, psychological relationship.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cale was high(Cronbach's $\alpha=.85$).

The result proposed PAR constructed 28 items.

I. 서 론

오늘날 산업화의 진전은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핵가족화, 주부의 취업률 증가,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 가족생활에 여러가지 변화를 가

져왔다. 이러한 변화로 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으며, 특히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들의 자원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원 측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연

구들은 대체로 자원의 객관적인 조건을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들면 소득이 얼마이고, 교육수가 얼마이며, 주택 방 수는 몇개인가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 방법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면 자원의 실제적인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자원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Heider(Rowland, Dodder와 Nickols, 1985 재인용)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오히려 지각된 환경이라고 하였다. 즉 가족의 현실(family reality)은 가족의 내적 지각수준에 의해 받아들여진 그것이며, 이러한 지각된 현실이 가족들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이기영, 1984a; 광인숙, 1986)에서 생활의 질 지각에 이웃에 대한 만족, 주거만족,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가족관계 등과 같이 객관적인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는 객관적인 자원의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최은숙과 김인숙 1990).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 자원의 측정 방법은 가족자원의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자원의 객관적인 조건을 측정하는 방법과는 달리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는 방법은 행동이 지각된 현실에 근거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특히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자원 자각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금전자원(Perceived Income Adequacy; PIA)에 집중되어 있으며(Buehler & Mason, 1987; Schram & Hafstrom, 1986 등), 금전자원 이외의 다른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 그밖의 환경자원에 대한 측정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자원들이 사용되며 이들은 상호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전자원 이외의 여러가지 자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자원을 포괄하는 자원지각 척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가족자원에 대한 자원지각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가족들의 자원관리행동을 이해하고 가정관리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자원이란 가족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잠재적 효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족은 자원의 소비를 통해 궁극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Deacon & Firebaugh, 1988). 즉 자원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자원에 대한 관심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과거에는 주로 특정 물적자원이 강조된 반면에 오늘날에는 다양한 자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적자원, 환경자원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가정관리에 대한 연구에 체계적인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가족체계의 역동성의 맥락에서 자원의 개념을 환경자원으로까지 확대하여 파악하게 됨으로써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에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자원의 분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며, 학자들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자원 자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적자원과 비인적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Gross, Crandall과 Knoll, 1980; Deacon과 Firebaugh, 1988). 이 분류 방법은 과거 자원으로서의 인식 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Gross와 그의 동료들, 1980). 그리고 자원이 사용되는 목적 또는 배분되는 목적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경제적 자원은 소비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자원이 회소성, 보편성, 전이성을 가지며 측정가능한데 반해 비경제적자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없고 그 특수성으로 전이성이 적고

입해 측정의 되지 않는다. 가정생활의 장(場)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지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해석과정으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자원에 대한 지각의 측정은 객관적 조건 측정에 대한 중요한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척도는 최근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Campbell, Converse와 Rogers(1976)는 생활의 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 이상의 부가적인 통찰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Andrew와 Withey(이기영, 1984b 재인용)는 주관적인 지표가 본래 객관적 지표가 알고자 하는 바를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함으로써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측정도구와 관련해서도 가족자원에 대한 연구에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Rowland, Dodder와 Nickols, 1985 : 218). 측정 방법으로는 보통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둘째로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과 실제 수준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자원에 대한 가족들의 지각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두번째의 방법은 첫번째의 방법과 세번째의 방법 각각에서 취해질 수 있으므로 크게는 두가지 방법, 즉 자원의 객관적인 조건을 측정하는 방법과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원의 객관적인 조건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응답의 용이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측정이 곤란한 자원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가족자원을 보는 시각은 총체적이어서 이러한 객관적인 측정 방법은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과 환경자원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측정 방법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행동이 자원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른다는 가정이다. Lewin(Rowland와 그의 동료들, 1985 재인용)은 행동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지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해석과정으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자원에 대한 지각의 측정은 객관적 조건 측정에 대한 중요한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 방법이 객관적인 평가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Moen(1980)은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하나의 척도로 평가하는 데에 비판을 가하고 객관적/주관적 그리고 상대적/절대적이라는 두차원에 의해 네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Wilhelm, Iams 그리고 Rudd(1987)와 Chung(1976)도 경제적 복지 측정에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적용시켰다.

한편 주관적인 지표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데 Larson(Ezeil, 1982 재인용)은 지각의 정확성은 연령, 성별, 경험, 지적능력, 자아 통찰력, 심리적 태도 등의 요인과 관련되며, 개인 또는 가족은 부정확의 가능성을 포함한 채 내적인 여러가지 지각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Brown과 Confeldt(Crawford와 Beutler, 1983 재인용)도 자원 측정에서의 그릇된 실례를 통해 지각의 부정확성을 제기하고 지각 지표 사용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이것은 지각지표의 적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각의 다양함으로 인해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 달리 나타나는 행동을 설명해주므로

가족의 자원관리행동의 연구에 주관적인 지각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고 있는 연구들은 소득적정지각(PIA : Hansen, 1969 ; Beutler & Mason, 1987 ; Schram & Halstrom, 1986)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의 가족자원에 대한 연구로서는 시간, 주거환경, 가족관계, 지역사회, 이웃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Mavnes, Nixon 그리고 West(1970)는 소비자의 시간 자원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고, Meeks와 Houdekerk(1981)는 가족의 주택수선기술을 자원으로 파악하였다. 두경자(1990), Maloch와 Deacon(1970), Heck(1983)는 가족 및 주부의 건강을 관리의 투입요소로 하였다. 문숙재와 이경희(1986)는 주거에 대한 과밀지각을 연구했으며, 이기영(1984a)은 생활의 질 지각에 생활수준, 주거, 지역사회, 가족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가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Peak와 Stewart(1985)는 주거만족, 이웃에 대한 만족이 하나의 생활의 질 지표임을 보였다. Buchler와 Hogan(1985)은 금전, 시간, 주거환경에 대한 자원적정지각 척도를 개발하였고, Olson과 Olson(1986)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복지척도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환경자원들에 대한 지각 측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Rowland와 그의 동료들(1985)은 보다 다양한 가족자원을 포함한 자원적정지각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금전자원, 시간자원, 건강자원, 대인적자원, 지식/기술자원, 주거환경자원, 지역사회자원이라는 다양한 자원 영역을 척도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족자원 연구에 유용한 도구를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원관리행동을 이해하고 가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들이 자원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척도구성

본 연구는 Buchler와 Hogan, Rowland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및 자원지각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척도구성에 참고로 하였다. 자원의 분류는 가정·환경적 접근의 여러 자원 분류에 기초하여 먼저 자원을 크게 가정자원과 환경자원으로 분류하고, 다시 가정자원을 인적자원과 비인적자원으로 나누었다.

자원의 영역은 7개의 영역으로, 가정자원의 인적자원으로서 건강자원, 지식/기술자원, 시간자원, 대인적자원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비인적자원으로는 주거자원·금전자원을 구성하였다. 환경자원으로는 지역사회자원이라는 하나의 영역만을 설정하였으며 인적·비인적 자원 내용을 함께 포함시켰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거자원과 대인적자원의 영역에 환경자원의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응답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자원으로서 보다는 주거자원이나 대인적자원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문항은 Rowland와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거자원영역을 6개문항으로, 건강자원영역을 4개 문항으로, 시간자원영역을 4개 문항으로, 금전자원영역을 6개문항으로, 대인적자원영역을 7개문항으로, 지식/기술자원영역을 6개문항으로, 지역사회자원영역을 3개 문항으로 하여 총 3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형 척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각 문항의 응답에 대해 “정말 그렇다”에는 4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을 주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일반적으로 가족 자원의 주된 관리자는 대체로

각 가정내에서 주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주부로 하였다. 그런데 가족의 자원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자녀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녀를 1인 이상 둔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로 제한하였으며, 조사는 1991. 5. 22~6. 12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서울에 있는 국민학교(2개교), 중학교(1개교), 고등학교(1개교), 대학교(2개교)의 학생 어머니들로 부터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400명이었으며, 배포된 질문지 400부중 314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부실하게 기재된 14부를 제외하고 300부(75%)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연령의 분포는 20대에서 50대까지이며, 30, 40대가 전체의 81%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7%, 대학교 이상 졸업이 31.1%, 중학교 졸업이 10.9%로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지위는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60.0%), 시간제 취업이 14.2%였으며, 전업제 취업이 12.1%였다.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69만원 이하가 9.3%, 70만원에서 119만원 이하가 30%, 120만원에서 169만원 이하가 36%였으며, 170만원에서 249만원 이하가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들의 변별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로 살펴 보았다.

둘째, 자원적정지각 척도를 구성하는 자원의 영역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영역에 관련되는 문항들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다 적은 수의 타당한 문항으로 척도를 정선하고자 요인분석에서 얻은 척도에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알아

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척도구성의 처음 단계에서 문항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간 상관관계를 보는 것은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38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므로 문항간의 상관관계보다는 전체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번 문항과 33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29번, 33번 문항은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Kerlinger(고흥화, 김현수와 백영승, 1989)는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상관계수가 .30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중요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20이상인 경우는 후속연구에 가치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킨다면 본 척도의 6, 29, 33, 34, 38번의 문항을 제외한 33개 문항이 .30 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고, 6, 34, 38번 문항은 .20이상의 값을 나타내므로 .20 이상의 36개 문항은 유용한 문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29, 33번 문항은 다음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두 문항은 의미전달이 잘못되었거나, 특히 33번의 문항의 경우 응답자에 따라 수리나 수선에 대한 이해의 범위에 따라 가정내의 남성들의 역할로 해석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불필요한 문항들을 제거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의 회전방법은 하나의 요인에 높이 적제되는 변수의 수를 줄여 그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VARIMAX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탐색적인 목적으로 1차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6번 문항과 35번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각각 하나의 요인을 나타냈다. 이런 경우 요인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

표 1. 문항과 자원적정지각 척도와의 상관관계

문	항	상관계수	문	항	상관계수
1.	주거면적이 가족들의 생활에 적절하다.	.32**	20.	정기적인 저축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51**
2.	주거환경이 가족들의 생활에 적절하다.	.48**	21.	나 자신을 위해 지출을 해야 할 때 별 어려움이 없다.	.44**
3.	부엌, 목욕탕, 화장실 같은 집안의 시설·설비가 가족 생활에 적절하다.	.49**	22.	친척이나 친구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	.41**
4.	주택구조가 가족들의 생활에 적절하다.	.57**	23.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줄 친구가 있다.	.38**
5.	주택이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52**	24.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줄 친척이 있다.	.41**
6.	학교등교나 직장출근을 고려할 때 주거위치에 별문제가 없다	.29**	25.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줄 이웃이 있다.	.40**
7.	일을 하는데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	.42**	26.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민고 의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48**
8.	운동을 하는데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40**	27.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가족들은 기꺼이 협조하여 함께 책임을 진다.	.47**
9.	현재의 건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49**	28.	내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	.40**
10.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44**	29.	가족들은 불필요하게 다른 가족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16**
11.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48**	30.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33**
12.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	.54**	31.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36**
13.	가사노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다.	.42**	32.	내가 가진 지식으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는 데 별 문제가 없다.	.43**
14.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45**	33.	집안의 고장난 것의 수리나 수선은 내가 할 수 있다.	.18**
15.	자녀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	.56**	34.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문제를 상의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28**
16.	나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시간을 낼 수 있다.	.49**	35.	가전제품 같은 것을 처음 구입했을 때 어려움 없이 작동시킬 수 있다.	.32**
17.	예기치 못했던 지출을 해야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45**	36.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가족이 이용할 만한 여러 시설·설비(도서관, 놀이터, 공원, 운동장 등)가 우리가족에게 유용하다.	.36**
18.	소득이 지출보다 많다.	.35**	37.	교통, 공기,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사회는 가족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44**
19.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수준이 된다.	.57**	38.	지역사회기관(구청, 동사무소, 지역보건소 등)의 시책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하다.	.29**

*P<.01 **P<.001

으므로 이들 두 문항을 제외한 34개의 문항으로 2차 요인분석을 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가 1.00 이상인 요인으로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대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었던 영역을 제외하면 처음의 예상대로 각 자원의 영역이 각각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인적자원 영역은 두개의 요인으로 나뉘어 묶였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62.4%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에 걸리는 문항들의 부하치가 높은 편이며 한 요인에 높은 부하치로 걸린 문항이 다른 모든 요인에는 낮은 부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문항들이 높은 변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에 묶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요인 I은 시간자원요인, 요인 II는 주거자원요인, 요인 III은 금전자원요인, 요인 IV는 건강자원요인, 요인 V는 지식자원요인, 요인VII은 지역사회자원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요인 VI은 친구, 친척,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항들로 묶이었다. Bott(이경희, 1988 재인용)와 Lee(이경희, 1988 재인용)는 사회관계망을 가족구성원이 맺고 있는 제관계로 정의하고, 친척, 친구, 이웃을 1차적인 사회관계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관계망은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물질적, 심리적 자원의 출처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원을 Deacon & Firebaugh(1988)는 사회적지원 자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요인VI은 '사회적지원 자원 요인'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요인 VIII은 가족들의 협동, 사람들과의 신뢰관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다. 따라서 이 요인을 '심리적 유대자원 요인'으로 불일 수 있겠으나 요인 VI과 요인 VIII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검증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의 결과 33번 문항과 35번 문항이 제외됨으로써 기술자원의 내용이 자원영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생활에서 기술자원은 중요한 하나의 자원 영역이다. 따라서 이 자원에 대해서는 추후연구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87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정선된 문항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정선하는 데에는 단계별 회귀분석이 유용하다. 이것은 문항들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하는 설명력(R^2)을 통해 문항들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즉 그 문항이 추가되어도 척도의 설명력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척도구성에 있어 그 문항의 유용성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항을 제외시킴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척도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많은 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보다 적은 문항으로 정선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자원요인을 포괄한다는 본래의 연구 목표를 기초로 8개의 자원요인의 요인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방법은 각 요인에 포함된 모든 문항으로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문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한다. 그리고 각 문항이 추가될 때의 설명력의 증가분을 파악한다. 문항의 선정에 있어서 종속변수의 구성 성격에 입각해 볼 때 설명력의 증가분이 5%미만인 문항을 척도 구성에서 제외 시키는 것은 정보의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간주될 수 있다.

시간자원요인의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 11번, 14번 문항의 경우 설명력의 증가분이 5%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여가활동시간이나 타인의 요구시간에 대한 걱정 지각이 시간자원 걱정 지각에 기여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네 문항은 전체 분산의 95%를 설명하고 있다. 주거자원요인의 회귀분석에서는 1번의 문항이 5%미만의 설명력 증가분을 보이고 있으며, 3번, 4번, 2번, 5번 문항은 전체 분산의 96%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주거 자원에 대한 걱정지각에 주거환경, 주택설비, 주택구조가 중요한 내용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금전자원요인의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17번, 21번 문항이 제외되어 예기치 못했던 지출이나 주부 자신에 대한 지출의 경우 금전자원의 걱정 지각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 자원적정지각 척도의 요인 행렬표

문항 번호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요인 VIII	Communality
12	.84	.11	.06	.14	-.03	.08	.05	-.05	.76
11	.81	.08	.15	.06	-.03	.04	.07	-.14	.72
14	.78	.09	-.06	.01	-.07	.14	.01	.03	.65
13	.75	.14	-.10	.01	-.05	.04	.05	.13	.62
15	.70	.05	.00	.08	.19	.00	.23	.25	.66
16	.70	.02	.13	.07	.02	-.02	.19	.12	.60
3	.09	.84	.05	.10	.03	.08	.07	.00	.74
1	-.02	.82	.08	-.08	-.06	.05	-.03	-.03	.69
4	.10	.79	.17	.14	.13	.01	.13	.02	.73
2	.16	.77	-.05	.03	.08	-.05	.22	.07	.69
5	.22	.58	.15	.12	.06	-.03	-.04	.23	.49
19	.04	.16	.77	.08	.14	.09	.15	.13	.69
21	-.04	.13	.73	.14	.17	.11	-.09	-.02	.62
20	.01	.06	.72	.16	.14	.02	.05	.29	.65
18	.07	-.08	.68	.06	.02	.03	-.01	.08	.49
22	-.01	.22	.59	-.11	.06	.34	.10	-.02	.54
17	.13	.08	.45	-.04	.19	-.20	.29	.31	.48
8	.02	.06	.10	.84	.00	.00	.00	.08	.73
9	.13	.04	.10	.82	.07	.10	.05	.06	.72
10	.15	.03	.02	.78	.10	.23	.06	-.14	.73
7	.04	.11	.05	.76	.04	-.03	.14	.11	.63
30	.03	-.02	.13	.00	.84	.06	.00	.05	.73
31	-.06	.08	.19	.11	.82	.00	.01	.00	.74
32	.08	.06	.22	.15	.67	-.02	.04	.10	.54
34	.06	.11	-.07	-.08	.48	.11	-.11	.38	.43
23	.10	.08	-.12	-.03	.07	.79	-.02	.07	.66
25	.13	-.03	.04	.07	-.02	.77	.21	.22	.70
24	.02	-.03	.14	.19	.04	.65	.04	.29	.57
37	.14	.13	.09	.13	.09	-.08	.76	.06	.65
36	.12	.05	-.02	.07	.01	-.12	.72	.03	.56
38	.13	.07	.03	.03	-.11	.14	.63	-.03	.45
28	.12	-.03	.15	-.03	.09	.17	-.05	.76	.66
26	.00	.15	.21	.04	.11	.30	.05	.63	.57
27	.09	.09	.19	.22	.02	.17	.16	.46	.37
고유치	6.60	3.43	2.63	2.36	1.95	1.65	1.48	1.10	
분산(%)	19.4	10.1	7.7	6.9	5.7	4.9	4.4	3.2	

표 3. 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

요인	문항 번호	회귀식에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²
시간 자원	12	.73
	15	.87
	13	.92
	16	.95
	*11	.98
	*14	1.00
주거 자원	3	.71
	4	.84
	2	.91
	5	.96
	*1	1.00
금전 자원	19	.69
	20	.81
	22	.88
	18	.94
	*17	.97
건강 자원	*21	1.00
	9	.73
	7	.91
	10	.96
지식 자원	*8	1.00
	31	.67
	34	.84
	32	.95
사회적 지원 자원	30	1.00
	25	.69
	23	.88
	24	1.00
지역사회 자원	37	.65
	36	.86
	38	1.00
심리적 유대 자원	28	.62
	26	.88
	27	1.00

*설명력 증가분이 5% 미만인 문항

나머지 네 문항은 전체 분산의 94%를 설명하고 있다. 건강자원요인의 경우 8번 문항이 5% 미만의 설명력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응답자가 주부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자원적정지각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

요인	신뢰도 계수(α)
시간 자원	.81
주거 자원	.81
금전 자원	.76
건강 자원	.79
지식 자원	.72
사회관계망 자원	.71
지역사회 자원	.61
심리적 유대 자원	.62
자원적정지각 척도	.85

9번, 7번, 10번 문항은 전체 분산의 96%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자원요인, 사회적지원요인, 지역사회자원, 심리적 유대자원요인의 경우 모든 문항이 유용함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원적정지각 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는 비교적 높은 .85를 보였다. 그리고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1~.61의 범위로 문항의 수를 고려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28문항으로 된 자원적정지각 척도가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다면적인 가족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척도로서 가족자원의 평가에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

V. 결 론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함께 주관적인 지각에 대한 측정은 자원관리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는 가족자원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각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38문항으로 구성된 자원적정지각 척도를 구성하여 상관계수를 이용한 문항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8개 하위 영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8개 자원 영역은 시간자원, 주거자원, 금전자원, 건강자원, 지식자원, 사회적 지원자원, 지역사회자원, 심리적유대자원으로, Rowland와 그의 동료들(1985)과는 달리 대인적

자원이 사회적지원자원과 심리적유대자원으로 세분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발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구성된 척도는 가족의 자원 측정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다. 첫째,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볼 때 가족에게 대인적자원이나 기술자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오늘날 핵가족화와 함께 대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 이런 맥락에서 Deacon과 Firebaugh(1988)가 제시하는 가족의 인적체계에 존재하는 '응집성'이나 '적응력'의 개념이 가족자원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Rice와 Tucker(1976)도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서 '응집성 또는 통합력과 적응력'을 들고, 이러한 자원으로 가족들은 위기에 대처해 나간다고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적정지각 척도의 구성에 가족의 포괄적인 자원의 파악을 위해 자원적정지각의 척도 구성에 이러한 개념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자원으로서의 기술자원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영역에 대한 척도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가족생활에 관련된 인적자원이나 지역사회자원 이외의 다양한 환경자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희화·김현수와 백영승 역(1989). Fred N. Kerlinger 저, 사회, 행동과학 연구방법의 기초, 서울: 성원사.
- 2) 박인숙(1986).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 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61-182.
- 3) 김경동·이은죽(1989). 사회조사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사.
- 4) 두경자(1990).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문숙재·이경희(1986). 도시가구의 주거과밀 지각과 주거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 학회지 4(1), 109-126.
- 6) 서정화·이기춘(1986). 소비자주의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8.
- 7)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이기영(1984a).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5-60.
- 9) 이기영(1984b).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 10) 이인수·유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 11) 장상희·홍동식(1984). 사회통계학, 서울: 박영사.
- 12) 홍두승(1987).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13) Backer, G. & Linda J. Nelson(1987). Resource allocation in the third world: conceptual approach, strateg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2), 131-140
- 14) Berger, P.(1984). Home management research: state of art 1909-1984.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252-264.
- 15) Buehler & Hogan(1985). Managerial functioning in single-parent families. Proceeding of the Family/Home Management Selection of the AHEA. 170-180.
- 16) Chung, Yuen Janet(1976). Determinants of the wife's perception of economic well-being among "disadvantaged"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 17) Beutler, Ivan F. & Jerald W. Mason(1987). Family cash flow budget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1), 3-12.
- 18) Campbell, A., P.E. Converse & W.L. Rogers(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19) Crawford, Cynthia E. & Ivan F. Beutler(1983).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consumer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45-58
- 20) Deacon, Ruth E. & Francille M. Firebaugh(1988). Family resources management, 2nd ed. Allyn and

- Bacon, Inc.
- 21) Ezell, Margaret Prater(1982). Family members' perception of household production in relationship to quality of life.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22) Gross, I.H., E.W. Crandall, and M.M. Kno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 23) Hansen, Gary David(1969). Home managerial tasks, perceived competence, and related social psycholog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retired couples. Thesis. Oregon State University.
 - 24) Haynes, Nixon and West(1990). Time perception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2).
 - 25) Heck, Ramona K(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26) Meeks and Houdekerk(1981). Housing deficits in newly purchased Home : implications for family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2), 101-114.
 - 27) Melson, Gail Freedman(1980). Family and environment. Burgess Publishing Co..
 - 28) Moen, P.(1980). Developing family indicators : Financial hardship a case in point. *Journal of Family Issues* 1, 5-30
 - 29) Olson & Olson(1986). Economic well-being of elderly families and individuals : an alternativ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1), 32-43
 - 30) Peck & Stewart(1985). Satisfaction with housing and Duality of l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4), 363-372.
 - 31) Rice, A.S. & S.M. Tucker(1986). Family life management. 6th ed. New York : Macmilan Publishing Co..
 - 32) Rowland, Virginia T., Richard A. Doddler and Sharon Y. Nickols(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
 - 33) Schram, Viki R. & Jeanne L. Hafstorm(1986). Family resources related to wife's time input to house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3), 235-246.
 - 34) Shull, Williams Jeanne(1976). Determinent of the home maker's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financial problems among "disadvantaged" families.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 35) Wilhlem, Mari S., Donna R. Iams & Joel Rudd (1987). Husband and wife agreement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1), 13-22

